



일곱 번째 나팔과 휴거 (1부)

-대니얼 저스터

예슈아 안에서 성도의 휴거와 의인의 부활이 환난 끝에 온다고 믿는 이들은 휴거의 위치에 대하여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시각은, 더 지배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휴거가 **요한계시록 11장**의 일곱 번째 나팔 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은 진노의 대접의 시기 (환난의 끝에 짧은 시기)의 끝에 있고, 욥 키푸르 끝에 나팔을 부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51~52**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계시록을 여는 열쇠>에서 저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우리 존재가 주님께 따라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되돌아오게 되는 휴거의 나팔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님의 재림 가운데의 일련의 사건들로 보며 일시적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고 있으며 그런 모든 시각이 어느 정도 불확실한 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이런 시각을 견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은 그냥 심판을 가져오는 나팔들 중 마지막 나팔을 말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일련의 나팔 중 마지막 것으로

최종 심판과 휴거와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 최후에 불릴 나팔은 아닙니다. 천년왕국 시대 내내 더 많은 나팔이 불릴 것입니다.

2. 욘 테루아, 나팔절에는 예슈아 안에서 명백하게 성취된 사건들이 있는 다른 절기들처럼 크게 성취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욘 테루아가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알리고, 휴거와 부활과 그 다음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일을 가져온다면, 우리에게는 그에 맞는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 시도들에는 주요 절기의 무게에 걸맞는 큰 성취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4:16~17**의 욘 테루아 혹은 로쉬 하샤나와의 연관성은 지배적인 시각이며 충분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가르쳐집니다.

3.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진노의 대접으로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연대기를 제공합니다. 일곱 인은 일곱 나팔에 문을 열어주며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에 문을 열어주며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전개 한가운데에 꼭 그 전개 속에 있는 것은 아닌 삽입된 서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삽입 서사를 그러한 곳에 넣은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일곱 번째 나팔 전에 요한은 일곱 번째 나팔을 막 불려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계 10:7**). 이것이 휴거와 부활의 나팔이라면, 이것은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은 메시아의 신부 안에서 계수된 수가 차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가르친 것과 같이, 그리고 그것은 **로마서 11장**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입니다). 휴거와 부활이 일곱 번째 나팔 후라면, 그 비밀은 **요한계시록 10:7**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분 후에도 여전히 휴거의 일부가 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0:7** 본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4. **요한계시록 11:3**은 1,260일 (대환난의 시간) 끝에 순교당한 두 증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휴거와 제가 믿기로 곧 뒤따를 부활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대지진이 있고 소돔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7,000명이 죽습니다. 이곳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도성이라고 가리키고 있기에 예루살렘과 동일시됩니다. 그럼 이것은 예루살렘이 주님께 돌이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 11:13).”**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이 떨어지는 다른 모든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반역하고 더욱 저주하는데,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예루살렘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예수아께 호소하는 그 시간과 맞아떨어집니다 (**마 23:39 후반**).

이것은 열방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진이 있고, 그런 다음 주님께서 그 열방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러 나가시는 스가랴 14장과 일치합니다. 예루살렘이 예수아께로 돌아서는 것은, 그것이 **스가랴 2~3장**과 그 다음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는 일 사이에 일어난다면 맞아떨어집니다. 성도들이 예수아와 함께 돌아오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거듭남의 경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집단적으로 예수아께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1:13절**의 이런 돌이킴이 있는 후에야, 우리는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을 읽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이 예수아께 부르짖을 때, 그것이 휴거로 이어지고, 그 다음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왕국이 된다고 믿습니다 (**계 11:15**).



주님의 안식에 들어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까? 사라
싱어맨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선한
목자 예슈아를 통해 이미 이 안식에
들어갔는지 설명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시청해 보십시오!

자막: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